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5차 세션, 구약성경의 동일시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대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5,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 구약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그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역, 즉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성령의 성격, 신성, 구약과 신약에서의 그의 사역을 탐구했고, 예수의 삶에서의 그의 사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요한 복음에서 그리스도와의 실제적 연합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뜻이라면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약, 공관복음서,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경의 그 본문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지만, 놓인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저는 공로를 돌리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훌륭한 조교를 두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기초 섹션 모두에서 Kyle Keating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았고, 그에 대해 그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제 책인 성령이 적용한 구원, 그리스도와의 연합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포함한 모든 신약의 가르침에 대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공허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소개된 개념을 채우며, 이는 이러한 개념을 예고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고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주요 개념은 동일시, 통합, 참여입니다.

지금 이것들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성경, 공관복음서, 사도행전에 같은 세 가지 개념을 사용할 것이고, 물론 우리는 그 세 가지가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동일시, 통합, 참여. 동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를 통해 그의 백성과 동일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백성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주장하시고 언약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이런 방식으로 그의 약속과 임재가 그들을 식별하고 고대 근동에서 그들에게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식별입니다. 통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백성을 창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를 두는 데 있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한 남자와 그의 아내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기적적으로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예고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통합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개인적 구원 원리, 개인적 구원 원리, 그리고 공동체적 또는 단체적 구원 원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른 모든 사람과 연합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임재를 통한 동일시. 그는 그들에게 전에 없던 정체성을 주고, 그것은 그들을 영원히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1장,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과 후손인 민족적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통합.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자신을 위한 백성을 창조하셨고, 이집트에서 구출하실 때, 그는 그들을 단체적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고대 근동의 다른 어떤 민족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백성으로서 그에게 속합니다. 동일시, 통합, 참여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게 그분을 따르는 자신의 경험 덕분에 하나님의 이야기와 심지어 하나님의 삶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신실하셨고, 그들은 그가 그들을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이야기에 참여했습니다. 그 나라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점에서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인 하나님 자신의 서사에 참여했습니다.

우선, 동일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같은 세 가지 요점을 사용할 것입니다. 동일시, 통합, 참여. 구약, 공관복음, 사도행전의 경우.

동일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적 현존.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창세기 1:27, 그리고 타락 후 죄책감에 시달리는 아담에게 묻는 첫 질문은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입니다. 창세기 3:9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욕망, 그들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과 함께 하려는 그의 지속적인 욕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택하고,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고, 그와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특정 가족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창세기 12:15, 17). 구약성경 이야기 전반에 걸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따라서 그의 언약적 현존은 그들에게 지상의 모든 민족과 같은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이 주제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신 것으로 옮겨가면서 명확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서신에 스며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것은 그의 서론에 걸쳐 있으며, 때때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모든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는 계속 나아간다. 고린도 회중은 구원받지 못한 몇몇 회원들이 있었다.

고린도전서 5장, 바울은 소위 형제를 내쫓으라고 말하는데, 그가 이교도들 사이에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화를 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계모와 함께 사는 남자는 그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그의 계모와 함께 사는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그를 그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해,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내쫓으십시오. 우리는 그가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바울은 그가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관대하게 대해주고, 조금 물려서서, 그를 받아들이세요. 만약 같은 사람이라면,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뒤따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신약에서 신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식별됩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어쨌든 직함의 방식으로, 형제로서,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등으로 식별되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 뿌리는 사도행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구약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에게 정체성을 주실 때, 특히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시고,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주장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8, 9. 주님께서 지시를 내리고 계십니다.

사실, 그는 장막, 특히 지성소, 성소, 지성소를 짓기 위해 기부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8, 9.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어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라. 내가 장막과 그 모든
기구의 모양에 관하여 네게 보여 준 대로 하라. 그렇게 하여라.

전국 각지에 다양한 성막 모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남부에는 제가
방문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테네시에 있을 겁니다.

제가 주를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지역,
동부 출신이고, 메노나이트가 지은 성막을 방문했는데, 그들은 멋진
투어를 해주었고,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성경적
사양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말했는데, 성경적 사양이 없는 곳은 제외하고요
.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 메노나이트 여성들은 자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일과 다른 것들은 그저 예술 작품일 뿐이에요, 알겠어요?
예술 작품, 대제사장 흉갑, 그리고 모든 일들. 하지만 여기 당신을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첫째, 이 장막의 존재 그 자체,
그리고 당신이 거기에 서 있고, 그것은 규모에 맞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외벽입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썼거나, 20년
전에 썼지만, 적절한 높이에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울타리, 동쪽에서 유일한 입구, 그리고 모든 희생의 필요성 등은
, 우선, 장막의 존재가 오라고 말하고, 그 다음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으로, 그의 정하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 그리고
여기서 말했듯이, 장막의 패턴에 따라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께서 지상의 장막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천상의 장막에 대해 전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바로 신의 현존과 천국 그 자체입니다. 초대와 배제 사이의 겹보기에 모순되는 것은 신이 은혜롭게 이스라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극복됩니다. 오, 주변 민족들은 성전, 사제, 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15는 궁극적으로 구약의 관점에서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독특한 희생 때문에 구약의 희생이 유효했고, 희생될 동물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온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5:8과 9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주신 다음,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5:8.

하나님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장막, 즉 천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장막의 목적입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과 동일시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과 동일시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입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아, 나는 너와 네 씨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물론, 언약의 다른 측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은혜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단독주의, 하나님만의 역사입니다.

언약은 단독적 이지만, 사람들을 붙잡자마자 즉시, 양자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주권적으로 시작하셔서, 아브라함이 기절해 있는 동안 동물의 조각들 사이를 걸어가셨어요.

어떻게 그보다 더 잘 일신교를 보여줄 수 있겠어요? 하느님은 문자 그대로 언약을 주권적으로 끊으십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것은 전부 그 분의 것입니다. 그것은 단독론적 입니다 .

하지만, 봄, 아브라함은 그의 것이 아니다. 하느님은 그의 생명, 가족, 미래를 요구하신다. 출애굽기 33장.

모세는 확실히, 나중에 보겠지만, 구약성서의, 아마도, 구약성서의 언약 중재자입니다. 물론, 아담, 노아, 모세, 다윗을 포함한 이 언약 중재자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모두 새 언약의 중재자, 즉 예수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저를 놀라게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반항적이야. 신이 말하길, 물러가라고. 내가 이 사람들을 폭파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만이야.

모세인 이라고 부르고 싶다 .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반대한다.

아니요,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믿을 수 없어요. 여기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의 영광을 보여 달라고 간청할 담대함을 가지고 있고, 이는 출애굽기 34장에서 신성한 이름의 명확한 계시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33장. 하나님의 정체성은 그의 백성에게 중요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이스라엘에게 수치가 되고, 아론에게 수치가 됩니다.

이걸 불에 던졌더니, 이게 나왔어. 금속을 던졌어. 오, 에런, 에런.

비난 전가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는 아내를 속였습니다. 그녀가 아니라 나를 비난해 주세요. 아니,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를 비난하고, 간접적으로는 그녀를 그에게 주신 신을 비난합니다. 비난 전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Aaron의 일은 정말 엉터리입니다.

나는 보석을 불에 던졌고, 이 송아지가 나왔다. 오, 아론, 아론, 아론. 우리는 아론과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남성 우두머리에 대한 나의 신학은 어느 쪽도 움직이지 않을 때, 그것은 사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산과 부모의 잔해이다.

남편은 자신을 낮추고 아내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게 저에게 리더십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황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이 그의 존재 없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출애굽기 33장, 하지만 나는 너희 가운데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길에서 소멸시키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오, 나의 말씀이여,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에게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길에서 소멸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고집 센 백성이로다. 고집 센 반항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그림이로다. 고집 센 목. 아, 문자 그대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사람들이 이 재앙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내 면전에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았다. 나는 너희 반역자들과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애통해했지만 아무도 장신구를 차리지 않았다.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잠깐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간다면, 나는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제, 네 장신구를 벗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 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벗어버렸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대신하여 주님께 중보한다.

출애굽기 33:15, 16. 주님의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의 대담함이 저를 날려버립니다. 당신의 임재가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눈에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와 당신의 백성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셔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당신의 백성은 땅 위의 모든 사람과 다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백성의 정체성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끔찍한 반역과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을 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들은 시나이 산 기슭에서 우상 숭배와 다른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세의 중재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그들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동일시하고, 자신을 그들과 연합시키는 주된 방법은, 우리가 말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신약의 교리를 예상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의 현신입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은 상당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거룩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을까요? 레위기 26:11~13.

사과드립니다. 아, 그건 제 문제입니다. 레위기지 민수기가 아닙니다.

민수기 26장은 그저 잘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겨자도 잘려나가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26장. 제가 엉뚱하게 써서 죄송합니다.

11~1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내 혼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너희 가운데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는 너희 명예의 막대를 꺾고 너희를 똑바로 걷게 하였노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죄 많은 백성과 함께 계실 수 있겠는가? 첫째,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정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사랑스러우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완전한 성경적 계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신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속성이나 자질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하지만, 그의 18가지 속성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인지 잘 모르겠고, 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16에서 20가지 정도일 겁니다. 파이 조각 18개와 같고, 신은 1/18이 거룩하고 1/18이 사랑스럽고 1/18이 뭐예요? 아니요, 아니요. 신은 모두 함께, 전능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어디에나 계시고, 등등입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말했듯이 그의 완전함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신이 거룩하고 정의롭고, 인내심이 없고, 자비롭고, 사랑이 없다면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신 앞에서 움츠러들 것입니다.

그가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충실하며, 강력하지 않고, 우리의 곤경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삶은 어떨까요? 어쨌든, 그의 속성은 그의 인격에 응집되어 있으며, 그는 모두 함께 있고, 그의 모든 속성이 동시에 있으며, 그는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함, 정의, 선함,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그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경배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은 유효합니다.

신은 항상 무한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의 피조물이 될 것이고, 그것은 하늘을 새 하늘과 새 땅보다 더 좋게 만들어 줄 한 가지 일이며, 환상적이고 영원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신에게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의 존재의 깊이를 파헤치거나 그에게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성격은 거룩하고 정의로우며, 아멘, 은혜롭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언약 관계에 전념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고, 그의 백성 가운데 걸으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세 가지 이미지는 모두 관계주의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창세기 12장부터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모자이크 언약이며, 심지어 동산에는 창조 언약이나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창조에서부터 언약이 진행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과의 언약적 관계에 대해 말해주는 그의 언약적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그는 거룩하고 정의로우며, 사랑스럽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는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고, 레위기 26:11-13의 이미지,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걸으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연합의 한 형태임을 확립합니다. 이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6:16에서 바울에게서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연합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울은, 추측하셨겠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을 인용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바울은 불신과의 영적 결합에 반대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교 사원에 갑니다. 아니요, 바울은 말합니다.

첫째, 이교도 매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바울은 당신이 나를 놀라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해 못하겠어요?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은 영구적이며, 당신이 가서 매춘부로서 당신의 지체들과 연합할 때, 당신은 매춘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끔찍합니다!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신자들의 사실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고린도인, 다시 말해서, 회중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교도 사원에 가서 어떤 식으로든 우상과 관련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설명합니다.

아니요, 폴이 말합니다. 악마가 그 일의 배후에 있습니다. 그게 어두운 면입니다.

그런 데서 멀리하세요. 물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마도 고린도의 모든 음식은 어떤 우상에게 바쳐졌을 겁니다. 하지만 사원은 멀리하세요. 사원은 불의와 어둠의 중심지이고, 악마에게 바쳐진 제사가 있지,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가 없습니다.

그는 주님의 잔과 악마의 잔을 함께 마시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며, 주님의 만찬 성찬에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개념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일곱 번 말씀하신 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메지 마십시오. 맥락은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종교적 결합인가요? 네. 이 구절이 결혼에 적용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해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곱 번이나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무슨 합의가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나는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걸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나와서 영적 불신과의 연합에서 스스로를 분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딸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실제로 딸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은 아들됨에 대해 올바르게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독특한 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그의 지위를 얻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와 여자는 아들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건 아름답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딸이 되리라. 아름답습니다.

좋아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한 형태임을 확립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인용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요. 그 논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써 자신을 연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저는 이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두 구약을 모두 흡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옛 것 말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7장. 아하스 왕은 자신이 영적인 척하지만, 신은 더 잘 아십니다. 오, 세상에.

10~14절. 다시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 표적을 구하라, 너희의 하나님이시여.

Sheol 만큼 깊거나 하늘만큼 높을지어다 . 그러나 Ahaz는 내가 묻지 아니하리라. 나는 주님을 시험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너무 작은 일이어서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개념이 성경 이야기의 전개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엿보게 해준다. 이사야는 구원자를 찾던 아하스 왕에게 예언한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주님을 제외하고 그는 정치적 동맹에 의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이 주님 자신에게서 올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누가 다윗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으로 아들을 낳을 것인가.
그는 임마누엘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번역할 수도 있다.

마태복음 1:22, 23은 이 음성 구절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로 도래할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시간을 내어 신약 성경 인용문을 다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것처럼 성경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입니다. 조셉은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메리가 그에게 불륜을 저질렀을까? 전혀 말이 안 통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그리고 꿈에서 주님은 진실을 계시하셨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신의 행위였습니다. 마태복음 1:22.

글쎄요, 우선, 20,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보다 간결하다.

그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 이사야 7장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예수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또 다른 본문입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저는 이 진리들에 대한 증거의 폭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약성경에 이 내용을 뿌렸습니다. 이 진리들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성취될 기초적인 진리들입니다.

에스겔 37장. 구약의 여러 언약 중개자 중 한 명인 다윗은 더 위대한 다윗, 메시아를 예표하는데, 그는 땅에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들과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며, 거룩하게 하는 자, 그는 그들과 그들의 후손 가운데 성소를 둘 것입니다.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4장부터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릴 왕이 되고,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 규칙대로 걸으며 내 율례를 잘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는 땅, 곧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 거할 것이다

.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하리라. 그리고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군주가 되리라. 나는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을 그들의 땅에 세우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에 두리라. 내 거처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열방은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선한 사람들이 이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는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의 왕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새 땅의 참된 중재자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어 그의 이전 언약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은 종말론적이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영원히 확립될 미래를 예고합니다.

천국이나 최후의 구원에 대한 그림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 후에 대한 말씀에서 그것을 봅니다. 모세의 아담과 이브는 “나는 주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썼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에 익숙했지만, 그들이 다음에 한 일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시는 소리를 알았지만, 그들은 그분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구약 역사는 하나님의 현존에 비추어 쉽게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었고, 이스라엘과 함께 가며, 멈출 때는 멈추고, 갈 때는 갔습니다.

기둥과 같은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 현상, 구름이 있는 기둥, 불이 있는 기둥. 당신은 그것을 신의 백성을 위한 신성한 야간등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역하고 주님께 죄를 지었으며 고린도전서 10장의 죄에 빠졌는데, 바울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불평, 성적 부도덕, 우상 숭배, 그리고 다른 무언가. 그게 나에게 그냥 옆으로 가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시험하는 신.

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록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외에는 어떤 시험도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떤 유혹도 독특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탈출의 길을 제공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구약의 길, 하나님의 구약 백성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께 반항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 그림, 세 가지 모티프, 동일시, 통합, 그리고 세 번째로 참여.

첫 번째 결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현존으로 연합하시려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들 중 하나가 됨으로써 그들과 동일시됨으로써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육신, 즉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연합하여 그들과 동일시하려는 궁극적인 약속은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빌립보서 2:7).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 종의 형상을 취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발견되셨을 때, 그는 자신을 낮추어 죽음에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자신과 서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하나님은 거하시며, 이중적 의미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Skenao는 거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장막을 친다는 뜻도 있습니다.

요한은 이중적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하나님은 거하시고,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가려지지만, 그것은 우리 주님의 변형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의 헌신을 재확인합니다.

마태 복음의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명령과 비교해 보세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어 신약의 신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그분 자신과 연합시키실 때, 그분은 그들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약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이 특히 이 측면에서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적 현존, 그분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식별하는 기초를 놓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들의 성육신과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해야 하는 배경의 일부입니다.

그런 것들은 공허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기차에서, 성경적 특별 계시의 전개되는 드라마에서 오며, 그 뿌리는 구약에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세 가지 측면 또는 그림 중 두 번째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통합과 회원 자격을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5,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 구약의 정체성입니다.